



전북은행, 남원시에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전달

남원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민들의 풍성한 설 명절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에 많은 시민과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28일 전북은행에서 생활품 꾸러미 100상자(김, 라면, 설탕 등 총 10종)으로 구성된 이 꾸러미는 관내 소외계층이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복지과장 조학익 과장은 “남원시에도 기부문화가 확산되어가는 바람직한 현상이 되고 있다며, 시에서도 행동하는 복지도시 남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남원=김기두 기자

설맞이 사랑의 보따리 전달

남원시보건소, 치매어르신 베지밀·누룽지·핸드워시 지원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 치매인심센터(과장 하진숙)는 2월 1일부터 사례관리 및 쉼터대상 치매어르신 300명에게 설맞이 사랑의 보따리를 직접 전달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치매인심센터 집단적 모임운영 사업이 중단되고 가정에서만 생활하는 치매어르신들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남원시는 어르신 스스로 간단하게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베지밀과 누룽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용품 핸드워시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면접촉 최소화를 위해 치매전담 담당자의 사전 안내전화 후 전달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협약, 당뇨 등 간단한 건강상태도 확인 할 계획이다.

치매인심과 하진숙 과장은 “이번 물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치매어르신의 영양보충과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체



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치매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군 무장면,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성금 기탁

고창군 무장면 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공동위원장 진윤식, 정남기)가 주관하는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 성금모금에 힘을 보탰다. 무장면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전봉준 장군의 행적이 남아 있는 무장면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성금을 모았다. 지금까지 모은 성금을 27일 오후 고창군청 2층 군수실에서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는 성금을 모금중이며 성금모금 기간은 올해 9월15일까지다. 현재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동상 디자인, 설치 수량, 설치 위치 등을 결정해 2022년 전봉준장군 탄생 166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 동상 제작식을 주진 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진안군 훈이네 한과, 설 명절 이웃돕기 물품 전달

진안군 부귀면에 있는 훈이네 한과(대표 전치훈)는 28일 진안군청을 방문하여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한과 200상자(6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훈이네 한과는 명절마다 진안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재료를 엄선하여 자체 생산한 한과를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탁된 한과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11개 읍·면 저소득 가정 2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치훈 대표는 “매년 한과를 전달할 때면 이 한과를 받고 기뻐할 이웃들이 생각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의 미소를 위해서 나눔 행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산署,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참여



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진안군의회, 조준열·김민규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초심을 잊지 않고 군민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산내면, 연화사 백미 50포 기부

남원시 산내면(면장 진명현)에 설 명절 이웃을 위한 사랑 나눔이 줄을 잇고 있다. 신황마을의 가십정토원 연화사 여강(興康) 주지스님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50포(10kg, 155만원 상당)를 산내면에 기부했다.

여강 스님은 “설 명절에 힘든 이웃들이 맛있는 밥 한끼라도 잘 차려드시면 좋겠고, 작은 정성이 좋은 뜻으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전해왔다. 또한 남녀의용소방대(대장 김종철, 이미영)는 코로나바이러스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올해 대학을 진학하는 지역 청소년에게 배움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학 입학금 1백만원과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함께 실천하고자 라면 32박스(1백만원 상당)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에 후원 잇따라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설맞이 나눔 캠페인과 근로장애인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후원금·품이 이어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1월 7일부터 29일까지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십시일반 한 손가락의 정성이 보태진 쌀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는 가운데 진봉면 최승훈님이 쌀10kg 25포, 밀음부동산 오재선, 금민건축사 류충렬대표가 성금 각100만원, (유)유진건설 30만원, 김산동 한상훈씨 21만원등 총350만원의 후원금·품은 근로장애인 30명에게 설명절 쌀을 전달하고, 지난해 12월 제조동 100명 증축으로 확보된 공간에 휴게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성덕면 희망드림복지기동대, 독거노인 노후 전등교체

김제시 성덕면(면장 강기수)은 28일 희망드림 복지기동대(대장 최부호)와 함께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복지기동대원들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 세대를 방문해 노후 전등을 교체했으며, 물건을 둘곳이 없는 어르신댁에는 다용도 선반을 설치해드리고 기재도구 정리를 해드리는 등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해드렸다.

최부호 복지기동대장은 “한파와 코로나로 열악한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